

문화의 뜰
정기간행물 경기 바 00071호
1994년 7·8월호 재창간
2007년 3월 31일 발행
통권 제 52호
화성 문화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287-1

특집 I 화성 3.1운동 유적지를 찾아

특집 II 아주 특별한 절 용주사

특집 III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1·2·3권 발간의 의의

문화의 뜰

Vol. 52







달빛 봉투

가족수당이 붙은 월급봉투
두툼한 봉투,

다문 입을 살짝 열어보니
그 속에, 한평생 자란 나무를 잘라내고 받은 나이테가 있었다

나무 그늘에서, 그늘로 걸어온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몇 가닥의 나이테를 팔아서 방울을 사고 쌀 한자루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손끝으로, 굵은 나이테 몇 가닥을 훔쳐내고 싶은 아버지 불길하여,
월급봉투의 입을 닫아버렸다

누런 달빛봉투, 왜 갑자기 열어보았을까

씻딩어리 냄새가 나는 저녁에
저의 손에 쥐었다 놓친 비누는 불안한 그의 얼굴이었다

이기인 1967년 인천에서 태어났고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 「충방직공장의 소녀들」이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현재 성균관대 국문과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30 38



43 54



특별기고 I 화성 3·1운동 유적지를 찾아서 _박환

특별기고 II 아주 특별한 절 용주사 _염상균

특별기고 III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1·2·3권 발간의 의의 _편집부

Contents

- 02 **초대시** 달빛 봉투 _이기인
- 06 **원장칼럼** 문화유적답사단 小考
- 08 **삶의 지혜**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아서... _진성규
- 11 **역사바로알기** 정조와 용주사 『은중경』 경판이 지닌 사연 _송일기
- 14 **화성의 민속** 부처내의 칠성제 _김용국
- 18 **화성의 문화유산** 『수성 최씨 시조 묘』 문화재 지정과 과제 _김진원
- 21 **서예이야기** 서예의 이해② 筆法 _이영재
- 27 **화보**
- 28 **작가초대석** _전덕제
- 30 **영상수필** 봄의 알츠 _황금모
- 32 **수필** 여기는 우체국마당입니다. _류순자
- 34 **이 한권의 책** 유럽의 환경친화주택 _류순자
 - 54 **문화원소식**
 - 55 **희비납부현황**
 - 58 **문화원에서 하는 일**
- 38 **특별기고 I** 화성 3·1운동 유적지를 찾아서 _박한
- 43 **특별기고 II** 아주 특별한 절 용주사 _염성균
- 47 **특별기고 III**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1·2·3권 발간의 의의 _편집부



김기훈(경기도사진대전 초대작가)

문화의 뜰

통권 제 52호
 정기간행물 경기 바 00071호
 발행일 2007년 3월 31일 발행
 발행처 화성문화원
 발행인 기봉서
 편집인 홍영덕
 주 소 445-92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287-1
 전 화 031-353-6330
 팩 스 031-353-6331
 홈페이지 www.hscc.or.kr

Design by 창커뮤니케이션
 전 화 02-333-1967

문화유적 답사단 小考

화성 문화원이 문화유적 답사단을 창단한지도 어언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금년 4월로 33회차로 문화유적 답사를 맞았으니 그 역사가 아주 길지는 않지만 이제는 화성 문화원의 전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음은 틀림이 없다 하겠다.

문화원이 으뜸으로 하여야 할 사업이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계발, 전승, 사업이라 한다면 우리 선조들의 그 정신과 얼을 통하여 일구어 놓은 문화유산과 유적을 답사하여 보고, 듣고, 배워서 이를 현재에 사는 우리들에게 접목시키고 더욱 발전 시켜서 아름답고 자랑스런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의무라 하겠다.

현대과학 문명으로 인하여 옛것이 무시되고 도외시되는 이 안타까운 시점에서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문화가족들이 합심하여 이를 지키고 보존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문화유적답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고장 화성에서도 많은 문화유산과 유적이 있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문화가 존재하며, 평소에 관광으로 그 지역을 보고 알았지만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문화유산과 문화 유적을 살펴 볼 때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며 감탄하고 깨닫게 되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알게 된다.

이제 화성 문화원의 문화 유적 답사단은 화성 시민들의 인기있는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었다. 처음 문화 유적 답사단을 창단할 때만 해도 어려운 문제가 몇 가지 있었다. 첫째는 답사 비용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시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문제였다. 처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 물론 사업비는 전무하고 또한 사업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려는 의지 속에서 1인당 1만원이란 최소의 회비를 받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해결하려 하다 보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다행이도 임원중에 단장을 맡기로 하고 차량임대료를 부담하겠다는 후원자가 있어서 원장도 일정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무모한 시작을 하였다. 또한, 홍보문제는 화성시 전역 아파트 동마다 안내문을 게재하고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안에도 안내문을 부착하여 홍보를 한 결과 처음에는 차량 한 대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3대로 증가되고 참가신청 인원이 많을 때는 선착순으로 마감하여 가지 못하는 회원들에게 원망을 받기까지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기봉서
화성문화원장



시작 처음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1년 열 두달 매달 실시하였으나 2005년부터 한여름 두 달과 한겨울 두 달은 쉬기로 하고 현재는 1년에 8회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시당국에 보조금을 약간 신청하여 보조를 받았고 2006년도에는 차량 임대료 부분을 지원 받았으나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 또다시 후원금으로 운영 하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처음에도 어렵게 시작 하였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 졌듯이 앞으로도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며 특히 사업비 부족 부분을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며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화성 문화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독 문화유적 답사단만큼은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기에 더욱 애착이 가고 보람 있게 느껴진다.

앞으로 개선되고 보완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은 회원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임,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임으로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홍보와 아울러 이미지도 높이고 화성의 문화 사업을 위해 투자할 때에 우리 고장이 더욱더 화합의 고장, 아름다운 고장이 되어 지리라고 생각하며 화성 시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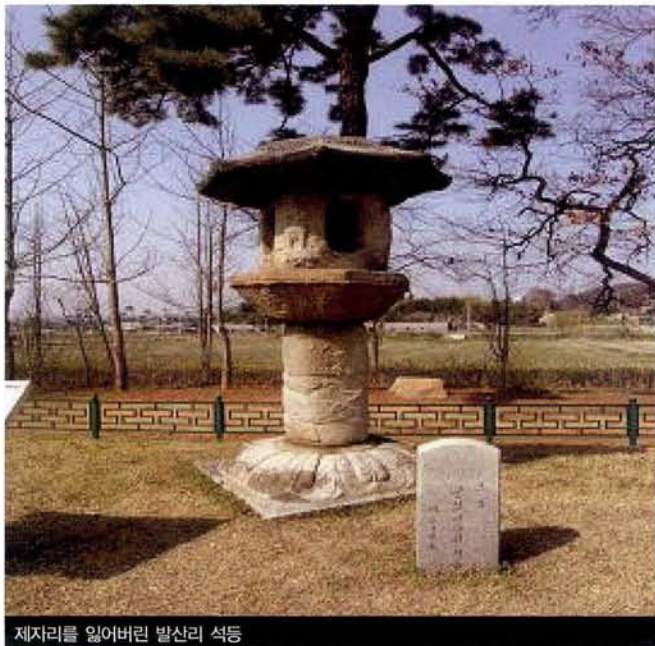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아서...

역사학과 2007년도 춘계답사에 참여하였다. 답사는 전북지역으로 일정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이었다. 답사는 언제나 설레임이 동반된다.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밤을 지새는 것도 그렇고 일상의 리듬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자유스러움 때문이다. 한편 뭔가 기대되는 심리가 있어서이기도 하다.

이번 답사 코스는 대부분 과거 몇 번 다녔던 곳이지만 유독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발산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석등을 비롯한 석물군은 첫 답사이기도 하지만 유난히 느끼는 바가 있었다. 군산지역은 금강하구에 자리 잡은 특수성 때문에 일제시대는 조선의 물산이 일본으로 흘러가는 항구도시로 많은 애환을 겪고 있다. 게다가 군산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땅들은 일본인들이 대거 점령하여 일본 농장이 많이 형성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합병당시 전북지역은 일본인 농장이 24개였는데 1920년대가 되면 58개로 증가하였다. 더구나 1천 정보 농장에서 100정보 농장까지 90여개 정도의 농장이 형성되어, 한국 사람들은 일본 지주들의 전호(佃戶)로 전락하였다. 이 당시 슬픈 역사를 배경으로 씌여진 작품이 채만식의 “탁류”다.

특히 발산초등학교 뒤편의 석물군은 발산리의 대지주였던 시마파니 야소야가 전라도 일대에서 수집한 사찰 문화재로 자신의 정원을 꾸미기 위해 수집한 것이라 한다. 이곳은 1903년 12월 야마구찌(山口)현 구카(玖珂)군 출신의 시마파니 야소야(島谷八十八)에 의해 만들어진 농장 자리이기도 하다. 시마파니는 주조업으로 돈을 거머쥔 후 술의 원료인 쌀을 찾아 군산에 들어온 자로 거금 칠만원으로 임피 외 2개 군에 486정보의 농장을 설립하였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이 많아 서화 골동품 등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보관했던 창고가 현재도 3층 콘크리트 건물로 남아있다. 창고는 철로 만든 잠근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바로 수입한 듯 아직도 “MADE IN U.S.A”가 선명하다. 그는 해방 후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귀화를 자청하기도 했으나 가방 두 개만을 든 채 부산에서 귀국선에 올랐다고 한다.





제자리를 잃어버린 발산리 석등

필자가 여기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하는 유물은 석등이다. 이 석등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이 석등이 일제 시 민족적 아픔을 겪고 현재 원래 위치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안내문에는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봉림사지(鳳林寺址)에서 옮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완주군에 문의한 결과 봉림사지는 분묘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발굴이 되지 않아 봉림사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없다고 한다. 이 석등은 사람으로 치면 미아인 셈이다. 식민지하의 고통을 아직도 안고 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렇다고 가야 할 고향도 분명히 없다. 문화재는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빛이 나는 법이다. 박물관의 문화재들을 보라. 한결같이 제자리를 잃고 지옥 속에서 절규하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관심은 이 석등의 특이성 때문이다. 이 석등의 하대석(下臺石) 4면은 복련(覆蓮)을 상대석(上臺石) 8면은 양련(仰蓮)을 장식하였고, 그 위에 사천왕이 장식된 화사석(火舍石)이 놓여있다. 화사석 위에는 8각의 옥개석이 있지만 보주(寶珠)는 없다. 특이성은 간주석(竿柱石)이다. 간주석 표면에 다른 석등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구름을 희롱하는 용을 돌을새김 하였다. 발톱

을 3개 가진 이 용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려는 자세다. 간주석이 4각으로 변하고 화사석 역시 4각을 닮은 8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8각에서 4각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석등의 하대석이 4면인 점은 불교의 사제설(四諦說)을 상징한 것이고, 상대석이 8면인 점은 팔정도(八正道)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제설은 석존이 연기설을 깨달아 불타가 된 후 이 연기의 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연기의 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시된 것이 사제설이다. 사제설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번쯤 들었을 고집멸도(苦集滅道)를 말한다. 고(苦) 집(集)은 생사 유전하는 인생의 고통과 원인을 말한 것이고, 멸(滅) 도(道)는 유전을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수행 방법을 말한 것이다. 사제설이야말로 불교의 핵심 논리다. 팔정도는 8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도라는 의미로, 정견(正見) · 정사유(正思惟) · 정어(正語) · 정업(正業) · 정명(正命) · 정정진(正精進) · 정념(正念) · 정정(正定)을 말한다. 팔정도는 사제설(四諦說)중 수도 방법인 도제(道諦)의 내용을 말한다. 간주석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을 그린 것은 부처님의 연기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승천하는 용트림의 자세를 갖고 팔정도를 실천하면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법등을 켤 수 있다는 의미로 상대석 위에 화사석을 얹어 놓았을 것이다.

석등은 불교에서 불상 및 탑과는 달리 그 신앙적 의미보다 장식적인 의미가 깊지만, 등 공양의 중요성은 불설등지인연경(佛說燈指因緣經) · 불설시등공덕경(佛說施燈功德經)에 기록이 보이고 화엄경(華嚴經)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에는 “등(燈) 하나하나가 수미산 같아 한 종지의 등유 기름은 큰 바닷물 같아서 공양 중 가장 으뜸되는 법 공양이다”라고 밝혀져 있다. 발산리 석등은 사천왕상과 옥개석을 볼 때 통일신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간주석과 화석이 변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고려 초기 작품으로 보고 있다.

아직도 우리 문화재가 제자리를 잃고 골방에 갇혀 신음하는 예가 너무나 많다. 군산시 발산리에 있는 석등이 제자리를 찾아 영원한 법의 진리를 전해줄기를 바랄 뿐이다.



정조와 용주사

『은중경』 경판이 지닌 사연

화성에는 화산이 있다. 이 화산의 서쪽에는 용릉과 건릉이 배치되어 있고, 동쪽에는 용주사가 자리하고 있다. 용릉은 비운의 왕세자였던 정조의 부친 사도세자와 혜경궁홍씨가 합장되어 있으며, 건릉은 정조와 왕비가 묻혀 있는 왕릉이다. 용주사는 정조에 의해 본래 용릉을 수호하는 원찰로 창건된 사찰이었으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능 또한 수호하는 사찰이 되었다.

정조는 비운의 아버지를 둔 까닭에 등극 과정에서 남모를 고난을 당했던 기억을 갖고 즉위하였다. 그리하여 즉위 이후 어느 정도 정치적 기반이 다져진 다음에 화성에 행궁을 건설하였으며, 또한 이곳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화산에 사도세자의 능을 옮겨왔다. 그리고 그 옆의 오래된 폐사지에 대규모로 수호사찰을 중창하고 친히 ‘龍珠寺’라는 이름을 내리었다.

이러한 일련의 추존사업이 끝날 무렵 1795년에 어머니 혜경궁홍씨(1735-1815)가 회갑을 맞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비운에 죽은 사도세자와 동갑내기였기 때문에 정조는 더욱 성대한 잔치를 마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정조는 용릉을 참배하고 새로 건설한 화성행궁으로 납시어 특별히 자신의 처지와 같이 흠어미를 모시고 사는 일반 백성도 초청하여 위로하였던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부모의 회갑을 맞아 오래토록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하여 두 가지 서적을 간행하여 널리 반포토록 하명하였다. 하나는 유교의 오륜을 강조한 〈五倫行實圖〉의 편찬이며, 다른 하나는 불교의 효경인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간행이다.

잘 알다시피 ‘行實圖’에는 세종때 편찬한 〈삼강행실도〉가 있으며, 여기에 종종때 추편한 〈이륜행실도〉가 서로 독립된 서책으로 전하였는데, 정조가 이 둘을 합쳐 〈오륜행실도〉를 편찬하게 하였다.

또한 불교의 효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은중경>은 본래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라,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일반 백성 사이에 쉽사리 포교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에서 편찬된 경전이다. 그래서 흔히 이를 '僞經'이라 이름하며, 정식 불교 경전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심지어 오랑캐라고 부르는 서하(西夏)에서도 아주 오래된 경전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동아시아 지역에는 대승경전 못지않게 널리 유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고려 고종때에 왕실에서 친히 비용을 충당하여 금은자(金銀字)로 쓴 사경(寫經)이 일본의 경도박물관에 남아 있으며, 충렬왕 때 목판에 판각하여 인쇄한 책이 경주의 기림사에 보관되어 있다. 그 후로 고려말에도 왕실에서 여러 차례 간행한 사실이 보이고 있으나, 정작 유교 사회인 조선시대 들어 와서는 전국의 유명한 사찰에서 한문과 언문으로 빈번하게 간행되어 무려 80여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삼고 있는 조선사회에서 더욱 많이 간행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일반 백성들이 공덕을 기원하는 불경으로 <은중경>을 얼마나 신봉했는가를 알 수 있겠다. 그리하여 때마침 부모의 환갑을 맞이하여 정조는 평소 존경했던 보경(寶鏡)스님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체제로 편찬한 <은중경>을 판각 인시(印施)하여 널리 유포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왕궁에서 당시 도화서 으뜸 화원인 김홍도로 하여금 판화의 밑그림을 그리게 하고, 또한 당대 명필가로 하여금 판각에 쓸 정서본(淨書本)을 한문과 한글로 따로 쓰게 하였다. 이 당시는 백하 윤순과 원교 이광사이래 송하 조윤형으로 이어지면서 완성된 동국진체가 풍미하던 시대이다. 아마도 정서본을 쓴 명필가는 필시 정조가 즐겨 쓴 '惇實圓厚'한 서풍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춘추강자(春秋綱字)의 자본을 쓴 조윤형(曹允亨)이나 혹은 현릉원표(顯陵園表)의 음기를 쓴 조돈(趙墩)은 아닐까 짐작해 본다.



<그림1> 목판 간기(刊記)



<그림2> 목판 한글본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정조때 인쇄를 전담했던 주자소나 도서관에서 특출한 장인들을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목판에 판각케 하였을 것이다. 판각에 사용된 목재는 가볍고 단단한 낙엽수를 사용한 듯 경판을 들어보면 종이처럼 가볍다. 아마도 정교하게 연판(鍊版)한 이유도 있을 듯 하며, 이 무렵 운각(芸閣)에서 판각한 목판의 특징이 이와 흡사하다. 이렇듯 판각이 완료되자 마지막 경판에 '歲柔逃執徐(丙辰, 1796)仲夏開印藏于花山龍珠寺' 이란 기록을 새겨 두었는데, 이를 통해 일이 정조20년인 1796년 한여름에 완성되었으며, 이때 판각한 경판은 화산의 용주사에 내려 보내 오래도록 간직케 했던 사실을 알려 준다. 그런데 이 경판으로 찍은 책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도서관과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수 천부를 인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불과 몇 해 지나 정조가 사망하였다. 정조를 이어 그의 둘째 아들이 등극하니 이가 순조이다. 순조는 즉위 초기에 부왕의 유지를 받들어 정조가 저술한 책을 많이 간행하였다. 즉위 다음해에는 용주사에 보관되어 있던 <은중경>의 '變相圖' 만은 특별히 동판(銅版)으로 주조하고, 또한 경문은 석판(石板)으로 제작하여 모두 용주사에 내려 보내 지금까지 전하는 내력이다.



〈그림3〉 동판 변상도



〈그림4〉 석판 권수

〈참고한 글〉

송일기·이태호 : '한국 옛 목판화의 아름다움', 한국의 고판화, 2005.

송일기 : '한국본 <부모은중경>의 판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19집, 2000.

송일기·이태호 : '조선시대 <행실도>판본 및 판화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21집, 2001.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사연을 지닌 용주사의 <은중경>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꼽길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그것은 정조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혼심(魂心)을 쏟아 만든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에서는 이 경판에 대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은 듯 한낱 향토의 문화재로 머물러 있음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부처내의 칠성제

부처내는 향남읍 수직1리의 자연부락이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설화라고 하는데 설화 가운데도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물이 있거나 인물이 있는 경우를 전설이라고 한다.

부처내에는 바로 그러한 전설이 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욕심을 부리면 하늘이 어떻게 벌을 내리는지를 확인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 까닭인지 소위 '장자못 전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전국의 어느 곳을 가나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부처내의 바로 옆동네인 갈천리(가래울)의 강래태, 박영식어른에게도 '장자못 전설'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부처내 고(故) 김일성 어른 댁에 모인 최순녀 할머니를 비롯한 어른들께도 들을 수 있었다.

“옛날 옛날에 중이 시주를 갔는데, 큰부자에게 시주를 달라고 갔는데, 안주고 부잣집 마누라가 쇠똥을 담아주더라.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안 되여. 그러면서 며느리가 몰래 중을 쫓아가서 쌀을 조금 주었어. 그랬더니 중이 나를 따라오라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거여. 그래 가지고 돌이 되었다는 거여. 그게 미력이여. 별안간 천둥번개가 쳐서 그 집이 바다가 되었다



2006년 7월 7일(음력)에 열린 부처내 칠성제

는 거여. 그래 그 미력임 팔세를 못한다고.”

지금도 마을에는 행랑뭇, 안채뭇, 방아뭇 등의 지명이 남아있어 전설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할머니들은 마치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하듯 자못 진지하기만 하다.

부처내의 산제사는 음력 7월 7일에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보통은 마을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제사는 정월이나 10월 상달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부처내에서는 칠석에 마을제사를 지내면서 산제사라고 하고 있다. 이 점이 궁금하여 여쭙어보니 그게 우물고사라는 것이다.

그렇게 부처내를 답사하고 음력 칠월 5일쯤인가? 마을어른들께 전화하였더니 7일 날에 마을제사가 있다고 하신다. 아침 7시경에 당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1시간 쯤 일찍 도착하면 되겠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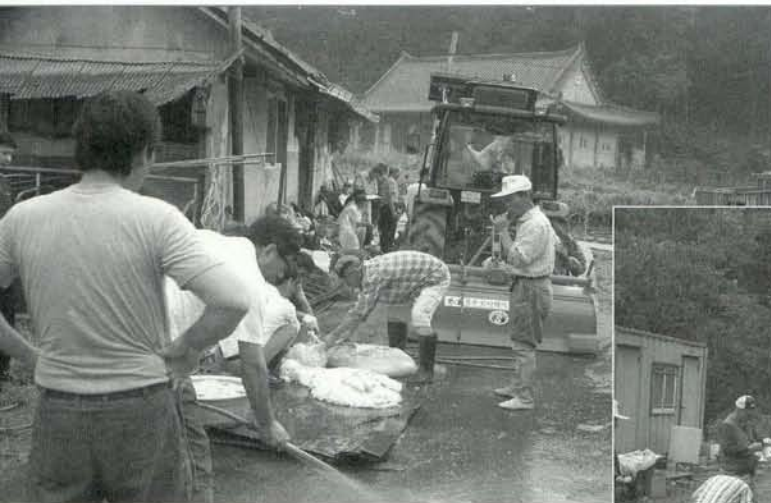
2006년 7월 31일(음력 7월 7일) 서두른 덕에 아침 5시 30분경에 마을에 도착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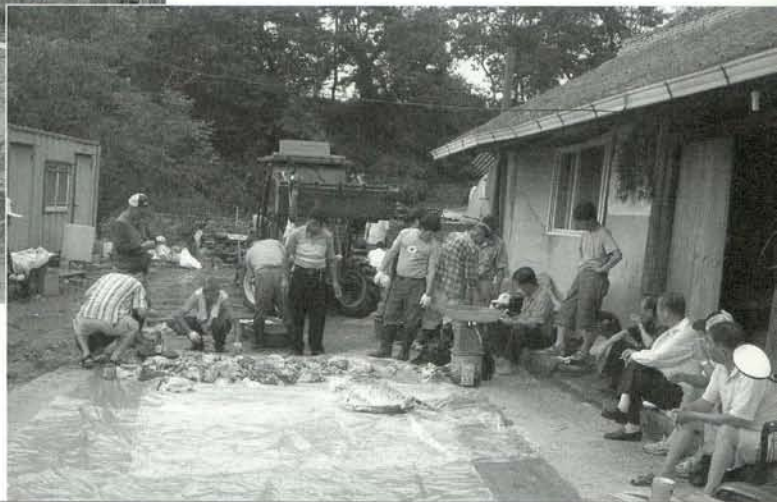
다. 그런데 어디를 보아도 산신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우선 당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마을회관을 지나 곧장 직진을 하다가 언덕이 나오면, 언덕을 내려서기 전 좌측으로 난 길이 있다. 그 길로 오르다 보니 우측에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을 어른들이 눈에 띄었다. 예상 보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조금은 의아해 하며 여쭙어보니 산신제를 준비하시는 것이라고한다.

당이라고는 하나 당집은 없고 제단만이 마련되어 있었다. 시멘트로 제단을 만들고 사방에 출입을 금하는 철조망이 둘러있다. 조사차 나왔노라고 양해를 구하고 산신제의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었다. 소의 넓적다리를 제물로 올리고 제사가 끝나자 고기를 잘라 사방에 던진다. 그리고 고기 한 점을 시멘트 기둥 위에 올리고, 북어를 올려두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제사를 지낸 뒤 당주를 맡으신 어른께 여쭙어보니 당을 칠성당이라고 하신다.

우리민족에게 칠성신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섬겨지며 이 칠성신에게 올리는 제사가 칠석에 행하여진다. 그렇다면 부처내의 산신제는 칠성을 위한 제사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 판단되었다. 필자가 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옆 마을인 갈천리나 부처내나 옛날에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제석주머니를 모시고 있었



▲▶ 제물로 쓰일 소를 손질하는 모습
◀ 제물로 쓰인 고기와 복어를 올려놓은 모습



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제석주머니를 모시고 있는 갈천리 박영식 어른댁에서 '칠월 칠석날은 밀누루미를 부쳐다 놓고 빌었지요' 라는 제보와 종합을 하여 보건데 부처내 역시 우물제사가 산신제의 주가 되었던 것이었으리라 판단한다.

실제로 부처내의 마을어른들께서 들은 바에 의하면 우물고사를 지내오다가 산신제의 형식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았다. 산신제를 지낸지가 40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우물고사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며 그 유래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강조하신다. 오늘날은 어느 마을이고 마을의 공동우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지역이 거의 없다. 그러나 옛 풍속을 그려보면 우물은 마을주민들의 생명수였으며 우물터는 정보교환의 장소였던 것이다. 건너 마을인 길성리에서도 할아버지 우물과 할머니 우물을 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아도 부처내의 산신제는 칠성을 위한 제사이며 우물제사가 변형된 것이라 판단한다.



『수성 최씨 시조 묘』 문화재 지정과 과제

우리시에는 용·건릉을 비롯한 왕릉과 오랫동안 세거해온 집안의 묘역들이 산재해 있다. 해방 이후 경제개발 시기에는 조상의 묘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례에 만족했으나 최근에는 선조들의 뿌리를 찾는 집안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조상의 업적과 묘의 역사성을 후손에게 잊지 않는 가르침으로 전하기 위하여 문화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각종 개발로 토지가 수용되어 이장하는 과정에서 중요유적지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집안의 묘역을 문화재로 신청하는 건은 최근에 많아져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엄밀한 고증과 문화재적 가치를 논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추세이다. 우리시에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우선 왕릉인 용·건릉이 국가사적 제206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남이장군 묘(경기도 기념물 제13호), 백천장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86호), 신빈김씨 묘(경기도 기념물 제153호), 남양홍씨 묘역(경기도 기념물 제168호), 우성전·우하영 묘역(문화재자료 제121호)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



다. 아울러 흥한묘역(화성시 향토유적 제10호), 반남박씨 묘역(화성시 향토유적 제13호), 노작 홍사용 묘역(화성시 향토유적 제14호)은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경기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 설정되기 때문에 개발압력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문화재 위원들이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과의 동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요즘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무관하지 않아 종중이 단독으로 문화재 신청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여지가 농후하다. 향토지정문화재는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이마저도 인근주민들의 지가하락 우려와 개발기대 심리로 문화재 신청인이 사회공약수를 획득하여 신청하는 일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6년에 화성시 향토유적문화재로 묘역 3건이 신청되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부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재의 원형훼손이 지적되었다. 대부분의 종중에서 효심으로 돌레석들 다시 치장하고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석물들을 배치하는 등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둘째, 타 지역에서 이장해온 묘역이다. 문화재는 원위치에 원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장하여 새로이 조성된 묘역은 우리시 정체성과 부합되기 어려운 여건이 제기되었다. 물론 인물과 석물자체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이 있어 향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2007년 매송면 숙곡리 산 81-1번지의 수성최씨(隋城崔氏) 시조 묘가 화성시 향토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돌레석과 석물 등이 역사성과 다르게 설치되어 있었으나 종중이 원형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여 문화재 신청을 하였다. 수성최씨 시조 묘는 화성이 시발지가 되어 사성된 성씨로 지역문화유산의 정체성과 계승을 위한 사료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화성시의 수성최씨 집성촌과 관련된 고문서를 함께 사료로 제출하여 시조묘의 역사성을 부각시켰다.

수성최씨 시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시조 휘(諱) 영규(永奎) 수성백(隋城伯) 문혜공(文惠公)의 본계는 경주김씨로 신라 경순왕의

후예이며, 고려 8대 현종의 외예(外裔)이다. 공은 문장과 재덕이 탁월하여 1261(원종 2)에 문과에 올라 승록대부 형조전서 낭부전서로 보문각대경을 겸하고, 서경의 유수로 있으면서 덕의로 백성을 교도하여 문화가 크게 일어났다. 고려 충렬왕 때에 수주(水州) 지역에 풍속이 퇴폐하고 윤상(倫常)이 혼매하므로 왕이 심히 근심하니 공이 자청하여 수주에 부임하여 백성들에게 충효의 책무를 가르치고 인의로 인도하여 일년이 못되어 윤리와 풍속이 크게 변화하고 효제지향(孝悌之鄉)으로 화하여, 왕이 가상히 여기어 1302년(충렬왕 28)에 최(崔)로 사성하고 수성백으로 봉하여 수성최씨가 비로소 시작 되었다.

후에 호남 안무사(湖南 按撫使)로 나갔다가 졸하여 시호를 문혜로 내려주었다. 수주의 백성들이 공의 덕의를 흠모하여 스스로 어량천(魚良川) 삼봉산(三峯山) 아래 병좌원(丙坐原)에 장례를 치르고 매년 절일(節日)에 관리들이 제사를 올렸다고 전한다. 배위는 정경부인 이천서씨(利川徐氏) 시중랑 문한(文漢)의 여(女)이고, 장자는 공조전서로 정당문학 찬성사 흡(洽), 차자는 밀직학사 필(泌)이다.

문혜공의 신도비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조정에 있어 공의 덕은 높고 웅장하여라 엄연히 수주에 임하사 독실히 가르치시고 윤리로 펴시니 풍속이 크게 변하고 지위와 명망 더욱 높아지셨네. 성(姓)을 하사받고 작위를 봉하니 이름은 후대에 남고, 형상은 아름다운 공적을 생각케 하네. 지나간 일 아득하여라. 구름과

물 같이 맑으니 백성들의 살기 좋은 곳이로다. 격식대로 된 유택(幽宅)을 보니 빗돌만 높이 솟아 오랜 세월 지워지지 않으리.” 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의 덕망이 화성지역에 널리 존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성최씨 시조묘의 향토문화재 지정은 문화재 지정이 단순히 종중의 명예나 영광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을 확인하는 지침이 될 것이다. 앞으로 문화재 지정은 주민과의 협의나 공청회가 요구될 만큼 중요한 지역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충분하게 검토된 종중의 의견합의와 진실하게 규명된 역사적 고증이 철실하게 요구된다. 수성최씨 가문은 부족한 사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고증작업을 펼쳐왔으며, 문화재의 원형복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화성시의 유일한 시조묘로써 자긍심을 갖는 문화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시의 역사 발전과 정체성확립에 수성최씨 종중이 충실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경주김씨 족보(慶州金氏 族譜)』
- 『안동김씨 족보(安東金氏 族譜)』
- 『신라삼성연원보(新羅三姓淵源譜)』, 1934.

筆法

「書法以用筆爲上, 而結字須用工. 蓋結字因時相傳, 用筆千古不易。」

書法에서는 用筆이 가장 제일이고, 結字는 모름지기 工을 쓸 뿐이다. 대체로 結字는 때에 따라 서로 바꿀 수 있지만, 用筆은 천고에 바꿀 수 없다.

序

筆法은 붓을 조종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기교로, 이것은 篆·隸·楷·行·草의 각체가 모두 일치한다. 그러므로 붓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이다. 붓을 조종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고도로 숙련되어야 각종 형식의 線을 표현할 수 있고, 각종 선과 선 사이의 호응과 대비를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추어야 비로소 한 폭의 성공적인 書法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筆法은 書法 기법 중 가장 중요한 기본 공부라 할 수 있다.

筆法은 執筆과 用筆의 두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집필법과 완법에 대하여는 전편에 논하였으며 다음으로 用筆에 관한 古人들의 이론을 토대로 논술하고자 한다.



用筆

1. 用筆이란?

「用筆」이란 술어는 王羲之의 作인 「書論」에 전한 것이 가장 이른다. 그중에 「夫書字貴平正安穩, 先須用筆, 有偃有仰, 有欹有側有斜 或小或大, 或長或短 (대저 글자는 평정하고 안온한 것이 귀하다. 먼저 用筆은 모름지기 누르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며, 바르게도 하고 기울게도 한다. 혹은 적게도 하고, 혹은 크게도 하며, 혹은 길게도 하고, 혹은 짧게도 한다)」이라 말하였다.

元나라 趙孟頫는 王羲之의 「蘭亭序十三跋」을 題한 말 중에 「學書在玩味古人法帖, 悉知其用筆之意 乃爲有益, 右軍書依 〈蘭亭〉, 是已退筆, 因其勢而用之, 無不如志, 茲其所以神也(書를 배울 때는 옛사람의 法帖을 완미하고, 그 用筆의 뜻을 알려고 궁구하여야 유익함이 있다. 왕희지가 「蘭亭」을 쓸 때 退筆로 썼지만, 그는 勢로 썼기 때문에 뜻과 같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神이라고 한다)」라 하였다. 이것은 곧 王羲之가 「蘭亭序」를 쓸 때, 모지랑 붓을 사용했다는 말이니, 모지랑 붓의 성능으로도 능히 붓을 이롭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묘한 書法作品을 써서 남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用筆」이란 두자의 설명으로, 붓을 사용해서 書寫할 때의 기능을 이해할 만 하다. 다만 趙孟頫가 상술한 「十三跋」중, 또 一跋에 이르길 「書法以用筆爲上, 而結字亦須用工. 蓋結字因時相傳, 用筆千古不易(書法에서는 用筆이 가장 제일이고, 結字는 모름지기 工을 쓸 뿐이다. 대체로 結字는 때에 따라 서로 바꿀 수 있지만, 用筆은 천고에 바꿀 수 없다)」이라 하였다.

오늘날 書法藝術이란 말 중에 있는 「用筆」두자는 넓은 의미(廣義)와 좁은 의미(狹義)의 두 종류로 이해할 수 있다. 廣義로는 붓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狹義로는 글자중의 點·畫을 쓰는 법이다. 따라서 廣義와 狹義는 서로 통일적이라 인정할 수 있다. 點·畫(간단하면서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선)은 書法의 기초가 되므로 붓을 잘 사용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좋은 點·畫을 쓰자는 것이다.

用筆이 머금고 있는 뜻에서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趙孟頫는 「書法以用筆爲上(書法에서는 용필을 제일로 한다)」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用筆의 원리

趙孟頫가 말한 「用筆千古不易」은 바로 말해서 用筆의 원칙은 천고에 변개될 수 없다(비록 各家, 各體라 할지라도 방법이 구체적으로 부동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을 뿐이다)란 것인데, 이런 관점은 정확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用筆의 원칙은 書法의 심미원칙으로도 결정적이다.

書法에서 선의 기본요구는 입체감이고, 입체감을 실현한다는 것은 用筆 원칙에 꼭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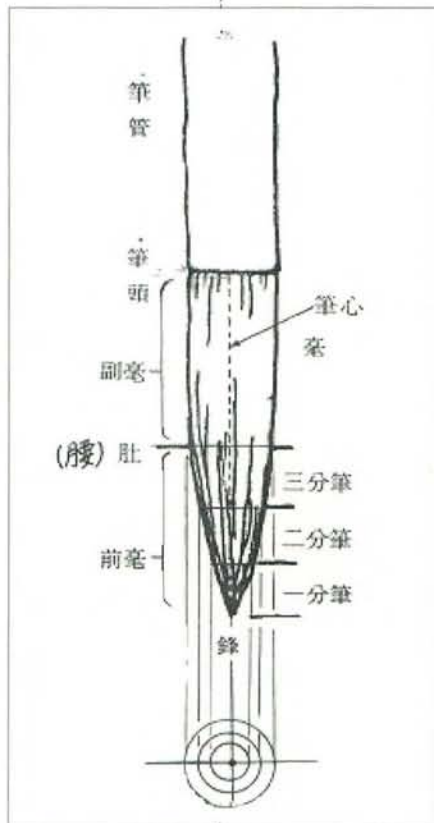
米芾는 「得筆則雖細爲髭髮, 亦圓, 不得筆, 雖粗如椽亦偏(得筆을 하면, 비록 머리카락 같이 가늘어도 원으로 할 수 있고, 得筆을 하지 못하면, 설사 서까래나무같이 굵을지라도 偏으로 된다)」(群玉堂帖의 米芾의 「手迹」에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른바 「得筆」이란 곧 用筆의 원칙을 정확하게 갖춘 것을 말하고, 「圓」이란 곧 點·畫의 입체감을 말한다. 만약 點·畫으로 하여금 입체감이 나타나지 않으면, 설사 字의 구성이 평정하여 東倒西歪하지 않았더라도 藝術의 관상 각도로 보면 가볍고 연약하게 될 것이 필연적일 것이니, 字形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書法藝術을 이루었다고는 할 수 없다. 가히 보건대, 用筆의 원칙과 입체감이 있는 선의 원칙과는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입체감이 있는 선의 심미원칙은 변개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書法藝術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用筆의 원칙 역시 변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에서 입체감이 나타나게 표현할 수 있는 用筆의 원칙은 무엇인가? 우선 붓의 성능부터 이해하여 보면.(그림1 참조)

붓을 제작할 때 붓끝을 중심으로 몇 개의 근간이 되는 털이 主鋒인데, 主毫라고도 부르며, 主鋒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붓털을 副毫라고 부른다. 붓은 墨을 묻혀서 쓰지 않을 때는 筆鋒의 끝을 볼 수 있고, 副毫의 주위는 원추형이다. 물론, 主毫와 副毫의 모든 붓털은 수직으로 만곡하지 않으며, 붓털과 붓털사이의 뒤를 리거나 꼬이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붓이 외부압력을 받지 않을 때의 자연적인 원형을 말한다. 이런 붓을 유리하게 이끌어 사용하면, 筆鋒이 이동할 때 主



(그림1)



〈그림2〉

鋒은 華畫의 중심을 시종 유지하게 되고 副毫는 筆畫의 양변과 四周에 있게 되는데, 이것을 곧 中鋒 行筆이라 부른다.

이때 붓끝에 머금고 있는 묵즙은 點·畫의 중심을 지나면서 四周를 향하여 스미게 되는데, 이렇게 쓰여진 點·畫는 重心이 있기 때문에 입체감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中鋒 行筆(간략하게 말해서 「中鋒」)은 천고에 바꿀 수 없는 用筆의 원칙으로, 설사 각종 서체가 부동하거나 篆·隸·楷·行·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일반적인 書體, 또는 각종 流派인 歐·虞·褚·顏·柳 등에 있어서도 한가지이다. 結字와 點·畫의 형태는 千姿百態하고 衆芳鬪艷 하지만, 書家는 中鋒行筆의 원칙을 후퇴하거나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이다.

中鋒에 대립적인 것은 「偏鋒」이다. 오른손으로 執筆하여 書寫를 하면, 천부적인 생리 기능은 한획을 쓸려고 落筆할 때마다 主鋒은 꼭 上邊으로 偏하고, 副毫의 四周는 단지 一面만이 쓰여 지면서 下邊으로 행하여 나아간다. 이렇게 쓰여진 筆畫은 붓끝에만 묵즙이 함유되어 勢는 당연히 一邊으로 偏向되게 스며들게 되서 「偏鋒」이 형성된다. 「偏鋒」의 筆跡은 필연적으로 輕浮扁薄 하여 세워도 기둥이 없는 病筆(敗筆이라 부른다)이 되고 만다.(그림2 참조)

옛사람이나 현대인의 우수한 작품 가운데 약간은 이런 點·畫을 볼 수 있으나, 筆鋒을 偏으로 下筆하여 다시 가운데로 돌려쓰는 그런 모양의 선은 여전히 입체감이 있다. 이 같은 行筆을 「側鋒」이라 일컫는데, 그것도 역시 用筆과 기본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一字, 혹은 한 폭의 書法 작품중에 순수한 中鋒과 偏에서 中으로 돌아온 側鋒을 같이 쓴다면 생동하는 변화 효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니, 이른바 옛사람은 「側筆取媚, 鍾(繇)王(羲之)不傳之秘(側筆로 아름다움을 취하였으나, 鍾·王은 그 비밀을 전하지 않았다)」하였다. 그렇지만 中鋒을

위주로 마땅히 해야 하고 겸하여 側鋒을 써야하니, 中鋒을 위주로 하면서 側筆로 써 변화를 주되 中鋒으로 돌아가야 한다. 初學 書法家에게 말하건대, 오로지 中鋒行筆을 장악한 이후, 숙련에 이르러야 側筆을 겸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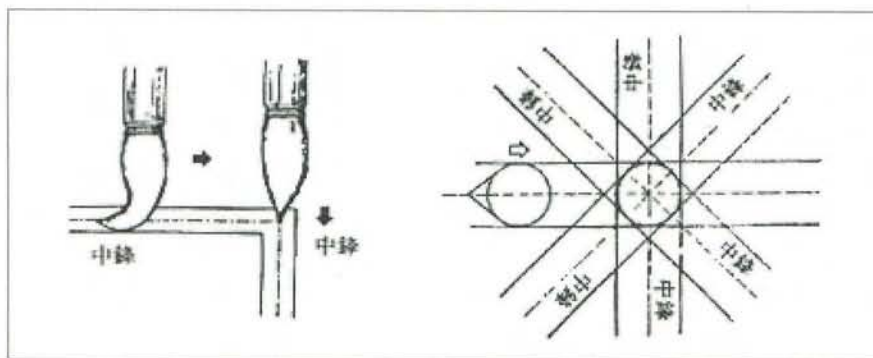
3. 用筆의 요령

하나의 點·書은 항상 어떤 字體를 막론하고, 모두 下筆(일명 落筆·行筆·收筆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의 적합한 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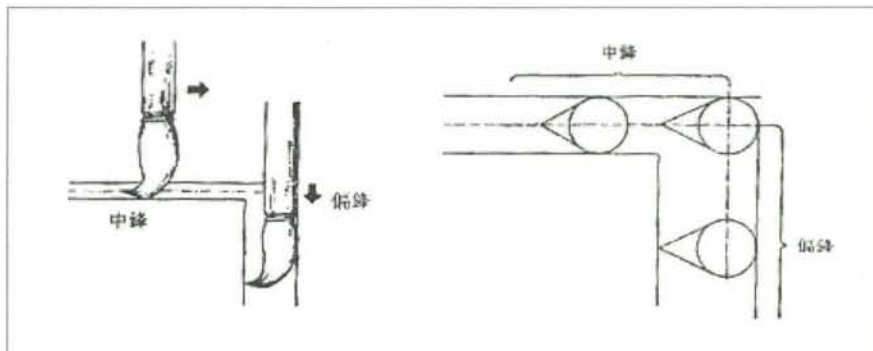
行筆의 순리는 收筆때 원만하게 거두어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상호 관련적이지 분할적일 수는 없다. 용필의 기본요령은 筆畫을 운행할 때, 지면에 붓끝을 수직으로 전량을 다하여 사용해야지 붓으로 하여금 꼬이고 뒤틀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收筆은 筆鋒을 지면에서 뿜 때, 下筆전의 원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곧 筆毛가 挺直해야지 꼬이고 뒤틀리거나 만곡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모든 點·書은 결속되고, 다음 획을 쓰더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통하게 되며 筆은 연속적으로 中鋒으로 쓰여진다.

그 관건은 「提按」두 글자로, 劉熙載의 「藝概」에서는 「凡書要筆筆按, 筆筆提(무릇 書는 筆筆마다 누르고 筆筆마다 들것을 요한다)」라 하였다. 「按」으로 行筆하면 毫가 퍼지고, 「提」는 곧 筆鋒을 세운 것이므로, 붓끝이 지면에서 떠받쳐지고, 또는 지면에서 떨어지는데, 이때는 반드시 中鋒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提筆하여야 中鋒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만약 行筆할 때에 毫가 퍼진다면 원상태로 하는 것이 中鋒이다. 그렇지만 轉轉한 筆鋒이 여전히 원래 방



〈그림3〉



〈그림4〉

향에 있고, 그렇게 轉轉하여 쓰여진 筆畫은 반드시 붓털이 구부러지게 되어 偏鋒으로 형성된다.(그림3 참조)

예컨대 轉彎處에서의 提筆이란, 붓끝이 紙面에서 들어 올려질 때, 鋒으로 하여금 수직된 원추형 상태로 회복되게 하여, 다시 어떤 방향으로 붓끝이 나가더라도 모두 中鋒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그림4 참조)

劉熙載의 「藝概」에서 「論書者每日換筆心. 實乃換向(書者가 매번 筆心을 바꾸려고 하면 실제로 방향이 바뀐다)」이라 말한 것은 바로 이런 意思이다.

만약 點·畫이 주도면밀하기를 요한다면, 轉彎處와 點·畫을 바꿀 때를 막론하고 提를 해야 하고, 또 어떤 一筆의 분신이라도 運筆하는 과정 중에는 提按을 해야 하니, 그 목적은 여전히 「偏鋒」을 하지 않고, 「中鋒」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運筆 과정에서, 筆心이 한변으로 편향되거나, 혹은 毛根이 着紙할 때 기울게 되면, 바로 筆을提起(단 붓끝이 종이에 떨어지면 안 된다)하여 筆心을 點·畫 중간으로 이끌어야 한다.

만일 初學者가 轉彎處에서 提筆하는 방법이 좋지 못하면, 붓끝을 지면에서 완전히 들어올려지는데, 이렇게 하면 兩筆이 시원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게 되니 한 걸음 한 걸음 提按의 공부를 증가시켜야 함이 옳을 것이다.

해설

* 得筆(득필) : 오랜 숙련 끝에 붓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경지, 다른 말로 「붓이 섰다」라고도 함.

* 東倒西歪(동도서왜) : 동쪽으로 기울러지고 서쪽으로 기울다.

* 千姿百態·衆芳薈薈(천자백태·중방투엄) : 글씨의 자태가 백, 천 가지이고, 온갖 꽃들이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는 것 같다.

* 輕浮扁薄(경부편박) : 입체감이 없이 평면으로 가볍게 나부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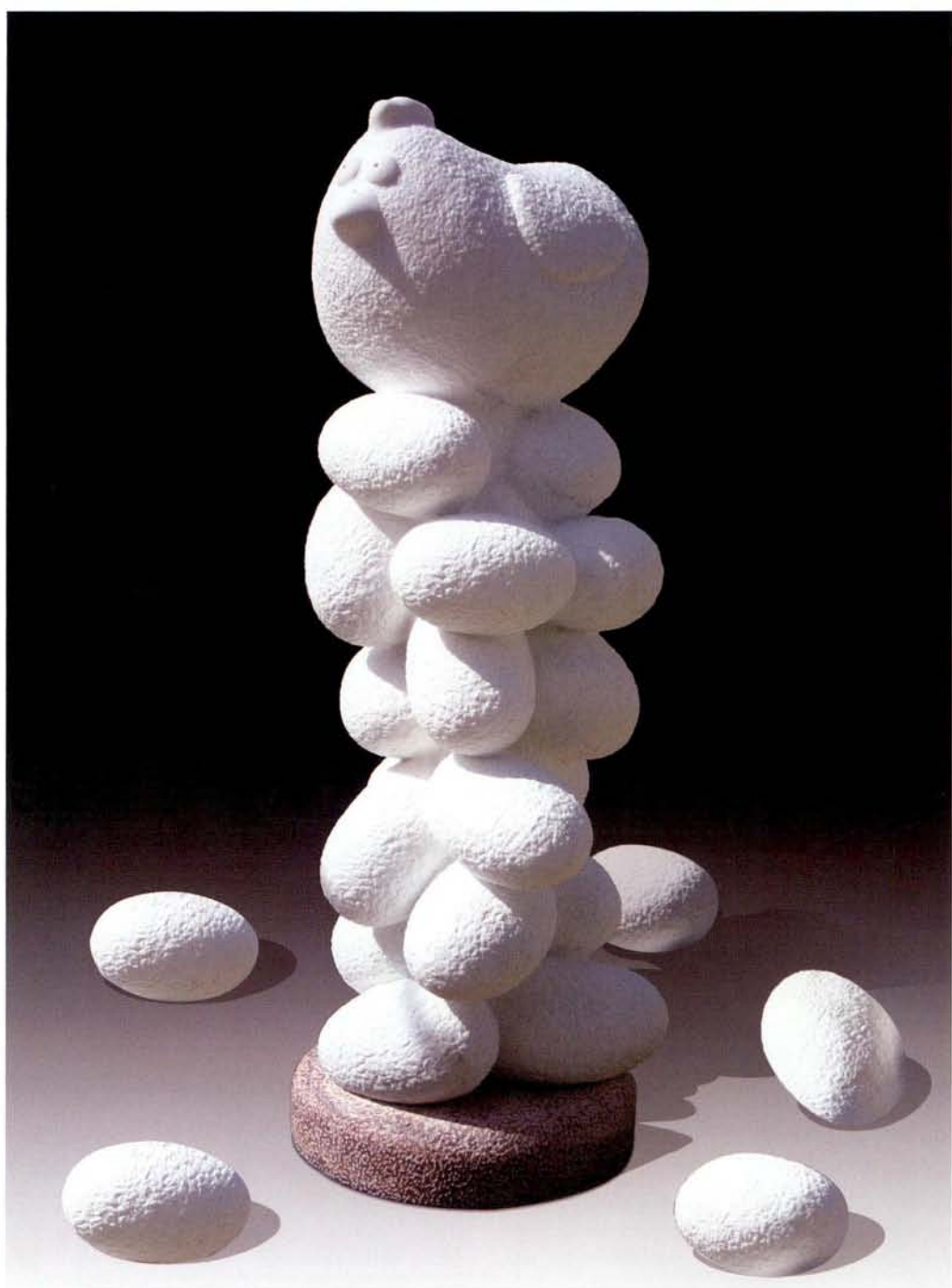
화성의 어제와 오늘

1972



2007





황금알을 낳는 닭 | 전덕제

작가 초대석



전덕제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고려대학교 미술교육 대학원 졸업
- 1998~2006 조각개인전 7회 / 단체전 다수

작품소장

- 도산공원 도산 안창호 흉상 제작
- 과천 현대 미술관 작품소장
- 경기도 미술관 작품소장
- 안산 일동 녹지조각공원 작품소장
- 천안 국민연금관리공단 상록 리조트 작품소장

수 상

- 강원도 미술대전 우수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2회
-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특선 2회
- 단체전 및 그룹전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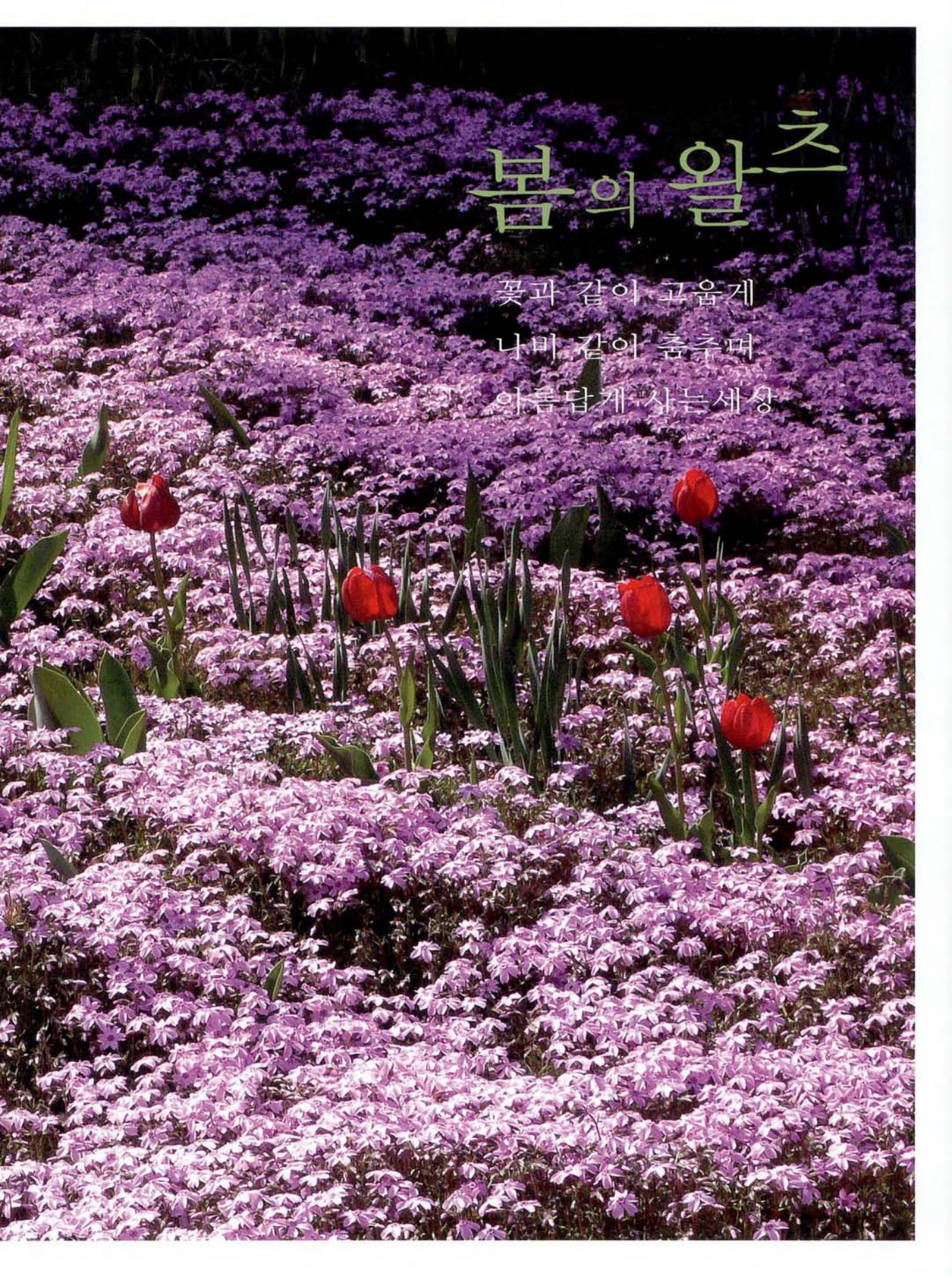
현 재

- 한국미술협회 화성지부회원
- 소조각회 회장
- 한국조각가협회
- 한국구상조각회 회원



봄의 왈츠

꽃과 같이 고옴게
나비 같이 춤추며
아름답게 사는 세상



“여기는 우체국마당입니다.”

여기는 우체국마당입니다.그러니까
여기에 쓰레기나 빈병, 플라스틱, 종이,
박스 등 재활용품도 가져다 놓으면 안 됩니다.

* 투기자 발견 시 즉시 고발 하겠습니다. (벌금 백만원)

“깨끗이 사용합시다.”



팔탄면 우체국 앞을 지나면 볼 수 있는 벽보다. 신문지 크기의 흰 종이에 검정 매직으로 써 붙인 글이 눈에 화악 들어온다. 그리 크지 않은 글씨라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텐데 발길을 멈추게 한다. 손으로 쓴 글씨체가 곱게 쓴 편지처럼 다정하게 다가온다. 고르지 않은 서툰 글씨가 오히려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대개 벽보하면 경고성으로 엄벌에 처한다거나 벌금 얼마해서 버려진 쓰레기를 혐오스럽게 하곤 하는데 좀 다르다.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말투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미안해서라도 다시는 버리지 않을 것 같다. 우체국사람들의 따뜻한 마

음이 내 몸에 흘러들어온다.

손으로 쓴 글씨에서 묻어나온 우체국직원의 마음도 소박하게 전해져 왔다. 마치 맨드라미, 봉숭아, 분꽃들이 손길 닿는 대로 심어져있는 프락이 주변 어디 쯤 있을 것 같다. 어린시절 시골집풍경을 연상케 하는 낯익은 기억은 뭘까?

도시에 살면서 여러 사람과 부대끼다 보면 별일들이 많다. 특히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다. 재활용품이니 분리수거니 말들은 있지만 실생활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다. 고작해야 플라스틱, 유리, 깡통, 쇠붙이 등

인데 분리를 해도 바로바로 치워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종이다. 종이는 버리기 참 아깝다. 잘못하면 비에 젖고 비에 젖으면 그야말로 쓰레기인데 말이다. 음식물쓰레기는 또 어떤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고양이나 개들이 파헤쳐놓기 일쑤고 여름에는 파리가 드글드글 하니 말이다.

버릴 것들은 많아지는데 버릴 곳이 없는 것도 문제다.

봉담읍 당하리 해병대사령부 입구육교와 도로변은 정말 심각하다. 자동차를 이용할 땐 잘 모른다. 나도 버스를 타는 일이 드물어 모르다가 었그제 한 번 지났는데 구역질이 나서 혼났다. 내가 이 동네 사는 것이 창피할 정도였다. 혹시 근처 K마트에서 버린 것이 아닐까 하여 물어보았더니 사장님도 쓰레기 문제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누가 버리는지 알 수도 없고 쓰레기 수거차는 종류별로 일주일에 한 번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해당 일에 가져가는 쓰레기 이외에는 항상 남아 있게 마련이라 언제나 깨끗할 날이 없단다. 하루에 한 종류씩 가져간다니 일주일 지나야 모두 없어지는데 그새 누군가가 또 버리고 간단다. CCTV를 설치하던가 매일 치워주던가 무슨 조치를 바란다고 올상이다. 나도 동네사람으로 치우지 않으면서 누구보고 안 치운다고 원망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갑갑한 노릇이다. 거리 난간에 산처럼 쌓인 쓰레기들. 생선을 담았을 법한 스트로폼 상자들, 분리수거봉투에 담겨진 음식물 쓰레기에서 흘러나온 더러운 물,

생활쓰레기가 온통 잡동사니로 섞인 쓰레기더미들이 육교를 오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사실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탈 수 없는 노약자나 인근 갈담학교 어린이들이다. 뭐가 그리 바쁜지 동네 길 하나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고 시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술 운운하며 사는 내가 부끄럽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자는 벌에 처함.
화성시장’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난간에는 이런 경고가 붙어있다. 무색하다. 쌓인 쓰레기를 보는 마음에 안타까움만 커질 뿐이다.

우체국 앞마당에 붙어있는 경고를 보면서 어린 시절 낮익은 풍경이 그리웠던 것은 아마도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맨드라미, 봉숭아, 과꽃을 촘촘하게 심어놓은 앞마당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이른 아침이면 그 앞마당을 곱게 쓸던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새로운 주거환경이란 무엇일까?

지금 유럽에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새로운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실험 단계를 거쳐 21세기의 새로운 주거단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생태와 야생생물 보호, 개발의 지속성 유지, 에너지 소비의 감축,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물 소비의 감축, 쓰레기 재활용, 지속가능한 교통계획, 인간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차량위주의 계획 축소 등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절약과 공존이다. 생명이 존중받는 한 지속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야할 과제인 것 같다. 우리도 시작해야한다.

이 책은 8개의 환경친화주택을 글과 그림과 사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정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주민을 참여하게 하여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정서를 반영하게 하려는 세심한 시스템, 자연환경을 활용한 에너지 획득 및 절약, 자연에서 예술의 모체를 찾아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흔적들을 보면 근원적인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예술이라는 생각이 절로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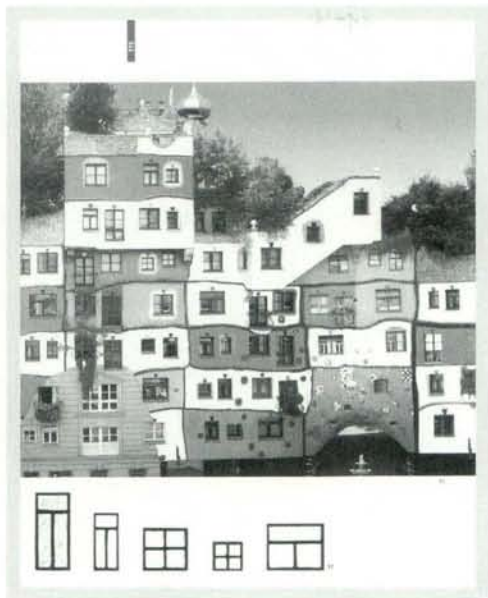
유럽의 환경친화주택
이규인, 도서출판 발언, 2002 서울

우선 첫 장에 영국 도크랜드의 그리니치 페닌슐라 지역에 옛 마을의 속성을



도시개발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된 에게르트 전경

이 밖에도 도시개발 목표를 지속가능성에 둔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었던 에게비 에가르트, 지방정부와 도시개발협약을 맺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을 구사하여 자족적인 뉴타운으로 주거와 일터, 심터를 함께 조성한 성공사례로 키르히스타이그 펠트, 저층고밀의 좋은 전형을 보여주는 스카프넥, 규격화 기계화에 회의를 느껴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는 간소한 주택에서도 생활하면서 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한 작품들로 세계적으로 주거에 대한 접근에 깊은 충격을 던진 이글스톤, 런던의 도심지에 있는 고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건축디자인으로 유명해진 오담스워크, 주택도 하나의 조각품이며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여 직선보다는 자유로운 곡선을 주거에 적용한 훈데르트바써하우스 등이 잘 소개되어있다.



자유로운 곡선을 적용한
훈데르트바서하우스

언뜻 보면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다. 하지만 많은 자금과 전문인이 필요한 새로운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도 사소한 우리 일상에서 돌아봐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건축자재에서부터 마루, 벽지, 가구, 물, 전기 등등 무심코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쓰고 나면 어디에, 어떻게 버릴 것인지, 버리면 누구에게 피해가 되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하게 해 주는 책이다.

한 세대쯤 지나 우리 아이들에겐 가능하지 않을까?

저자 프로필

- 서울대 건축학과 졸, 동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 영국 국립건축연구원(BRE), 런던대학교(UCL)에서 박사 학위 취득
- 대한주택공사 도시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임
- 현,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한국 도시설계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한국생태환경 건축학회 이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 자문위원
- 주요연구,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모델개발,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 21세기 미래주택연구, 복합단지개발
- 주요저서
세계 테마형 도시집합주택, 한국공동주택계획의 역사, 도시집합주택 11+44, 한국공동주택 16제 등

화성 3.1운동 유적지를 찾아

-장안면 꽃밭, 용당골, 항골-

김명호 묘소

화성지역 3·1운동의 대표적인 근거지 중의 하나였던 수촌리를 찾아 나섰다. 수촌리는 현재 수촌 4리까지 나누어져 있다. 원래 수촌교회가 있던 마을과 길 건너 위쪽의 가장말은 1리이며, 꽃밭(화전), 용당골은 수촌 2리, 방축골, 감나무골은 수촌 3리, 항골은 수촌 4리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3·1운동 당시에는 이들 마을이 전부 수촌리였으며, 수촌교회가 있는 곳과 가장말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꽃밭, 방축골, 용당골 등에 일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항골의 경우 바닷가를 막아 농지로 사용한 이후 형성된 새로운 마을이라고 한다.

수촌리는 발안에서 조암방향으로 길 좌우에

있는 농촌마을이었다. 우선 필자는 수촌리 가운데서도 수촌 2리에 해당하는 꽃밭, 용당골 등에 살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만나 당시 가족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집터, 묘소 등을 답사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를 위해 우정면 조암리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김종학의 후손인 김영철(1933년생)씨를 찾아 나섰다. 그는 조암시장 안에서 대영철물을 경영하고 있었다. 마침 오늘은 조암 장날이 서는 날이라 터미널 근처를 중심으로 하여 우정면사무소(현재는 쌍봉산 인근으로 이전)와 우정파출소가 있는 좁은 길은 인산인해였다. 아낙내들이 과일이며, 옷가지며 여러 물건들을 파는 시장 통 안에 위치하고 있는 철물점에서

김영설씨를 만났다. 70대 초반의 김선생님은 자신의 조부의 항일사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필자에게 호의를 보이며, 꽃밭일대 안내에 큰 도움을 주었다.

조암시장의 경우 발안으로 나가는 신작로가 닦인 후로 발전한 시장이었다. 1919년 당시에는 사곡리에 조그마한 시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암시장은 3, 9일에 장이 서는 5일장으로, 5, 10일에 서는 발안장과 더불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요한 장소였다. 특히 조암장의 경우 지금은 점차 퇴색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온리, 원안리 등에서 거래되는 바지락 등 수산 자원으로 많은 돈이 도는 중요시장 중의 하나라고 김영설씨는 귀뜸해 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선창 포구 등 여러 포구들이 문을 닫았지만 고온리의 경우 충남 당진 등과 연결되어 있고, 기아자동차 등의 수출을 하는 평택항과 인접해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항으로서의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한다.

김영설씨와 더불어 그의 조부이신 김종학씨가 살던 수촌리 68번지를 찾아 나섰다. 그곳은 행정명으로는 수촌 2리에 해당되며, 옛 이름은 화전(꽃밭)이었다. 그곳은 조암에서 발안 방향으로 가다가 어은 1리(은골)를 지나 고개 넘어 내려가다가 수촌가든에서 왼쪽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수촌가든 위에는 방축골에 살면서 수촌리 구장으로서 3·1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백낙렬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었다.

꽃밭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가니 넓은 벌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큰 개천이 나타났다. 그 개천옆길을 따라 꽃밭으로 향하였다. 바로 이곳 개천을 통하여 과거에는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왔다고 한다. 방축골은 이곳 바닷물을 막아 농사를 지은 곳이기 때문에 명칭이 방축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고 배를 타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길을 따라 2Km쯤 달리니 수촌슈퍼가 나타났다. 그리고 수촌 2리 마을회관도 나타났다. 넓은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보였다. 수촌슈퍼를 끼고 좌측으로 들어가 50m쯤 가니 좌측에 단정히 꾸며진 농촌 주택이 하나 나타났다. 그곳이 바로 김종학씨가 살던 수촌리 68번지라고 한다. 그 집에는 현재 최윤화씨(1932년생)가 살고 있었다. 옛날에는 초가집이었으나 집의 형태는 도저히 찾아 볼 수 없었다. 집 앞으로는 멀리까지 벌판이 보였는데 이곳이 모두 과거에는 바닷가였고, 바닷물을 막아 농토를 만들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수촌1리 마을에서 이곳으로 조부 때 이주하여 왔다고 한다. 바로 이곳은 용당골과 마찬가지로 당시 새로이 형성된 마을들이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는 넉넉지 못한 소작마을이었다고 한다.

김영설씨는 68번지 맞은 편이 70번지(72번지)이며, 72번지(현재 70번지, 필지가 큼)에 살고 있는 김재영씨의 조부가 만세운동에 참여한 김응식이며, 그 뒷집이 73번지이며 김응식의 행랑채에 김명우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김응식 댁 뒤로 조금 가니 오랜 기와집



김응식 묘소와 김응식 초상

한 채가 나타났다. 그곳에 만세운동에 참여한 백순익의 작은 아들인 백상기 부부가 살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우리는 김응식씨의 손자인 김재영씨를 만났다. 그는 1919년생(호적상 1921년생)으로 기억력도 좋아 수촌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다. 김재영씨는 자신들은 할아버지 때 수촌1리 현재 교회에 있는 곳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여 바다를 막아 농토로 만들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터 및 집 앞의 비닐하우스 앞이 옛날 살던 곳이며 70번지라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이 필지는 상당히 컸다고 알려 주었다. 또한 그들 집안은 일찍부터 기독교 감리교를 믿었으며, 제암리 학살사건시 살아남은 전동례 할머니가 외숙모가 된다고 알려 주었다. 수촌리와 제암리의 사람들이 신앙적 및 인적관계가 돈독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또한 아버지인 김형묵은 3·1운동 이전에 지하운동을 했고, 배재학당을 다녔다고 알려 주었다. 아마도 이들이 기독교 신자였으므로 일찍부터 서울에



김명우 묘소

있는 기독교 학교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에서의 만세소식을 집안에 전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 당시 이곳 목사였던 김교철 목사는 가장말에 살았으며,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김종학은 종교가 없었다고 한다.

김재영씨는 조부이신 김응식의 사진도 보여주었으며, 부친 형묵씨는 조부가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후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서 오산 쪽으로 가서 숨어살며 강습소 선생도 하고 하였다고 알려 주었다.

김재영, 김영설 선생님은 김응식은 안동김씨이며, 김종학씨는 김해 김씨라고 알려 주었다. 즉 이곳 꽃밭에는 동족부락이 아니며, 여러 성의 사람들이 모여 산 마을이라고 하였다. 집을 나와 마을 안으로 조금 들어가 왼쪽으로 백순익씨가 살던 집터가 나타났다. 현재 주소는 수촌2리 56-7번지이며, 이덕기씨 살고 있었다. 집은 농촌 가옥으로 잘 꾸며져 있었다.

다음에는 김재영, 김영설씨들과 더불어 김응식, 김명우, 김종학선생의 묘소를 찾아 나섰



김종학 묘소와 수형자 카드



다. 김응식의 묘소는 꽃밭에 해수식염 온천탕 인근 산 밑에 위치하고 있었다. 온천탕에 도착하여 5m 쯤 산으로 들어가니 잘 정돈된 가족 묘지가 나타났다. 수촌리 산 61-3번지였다. 그곳 오른쪽에는 김응식 부부 묘소가, 좌측에는 그의 아들 김형묵의 부부 묘소가 나란히 함께 하고 있었다. 묘소에는 십자가 표시와 함께 <독립유공자 안동김공응식, 배단양씨옥화>라는 비석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 김공형묵, 권사 순흥안씨진녀>라고 되어 있었다. 묘소에서 바라보니 온천장이 눈 아래 들어 왔다. 묘소를 찾은 김재영씨는 조부의 묘소에 비석이 설치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애국지사들의 묘소에서는 정부의 후원으로 마련된 비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필자 역시 8순 노인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할 수 있었다.

다시 우리 일행은 독립운동가 김명우의 묘소를 찾아 나섰다. 온천장의 뒷길을 따라 조금 가니 사강 4리 마을회관이 나타났다. 그곳 바로 못미처 좌회전하여 200m 쯤 가니 좌측 평

지에 묘소가 나타났다. 묘소 밑으로는 넓은 농지가 아래로 내려다 보였다. 묘비에는 <애국지사 안동 김공명우지묘, 배전주씨 쌍봉>이라고 되어 있었다. 김명우(1887-1951)는 김응식과 같은 안동김씨이나 파가 다르다고 한다.

다음에는 김종학의 묘소를 찾아 나섰다. 수촌 4리 향골 마을회관을 지나 젓소 축사에서 우회전하여 접은 농로길을 지나 200m 쯤 가니 집 몇 채가 나타났다. 그곳에서 산으로 300m 쯤 올라가니 김종학의 묘소가 나타났다. 묘비에는 <애국지사 화산김해김공 휘 김종학 배 유인안동김씨부좌>라고 되어 있었다. 김종학은 1890년생으로 2년 동안 형무소생활을 하고 출옥하여 1925년 음력 8월 25일 35세의 젊은 나이 순국하였다. 고문의 후유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아울러 옆에는 김종학의 아들 김정태의 묘소가 있었으며, 김정태의 둘째가 김영설씨다.

다음에는 용당골에 살다 3·1운동에 참여한 김규완(김황운), 김명호(김여근)씨가 살던 집터를 찾아 나섰다. 꽃밭에서 50m 쯤 독정리로



김규완 집터

향하다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용당골이었다. 금녕김씨 집성촌이다. 공장들이 너무 들어서 있고 폐지들이 너무 흩어져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다.

용당골로 들어가 50m쯤 가다 좌측으로 들어가 다시 20m쯤 들어가니 폐가가 한 채 나타났다. 이곳이 바로 김규완(김항운)이 살던 곳이라고 한다. 수촌리 128번지라고 김재영씨가 알려 주었다, 아들 김용호도 이곳에 살고 있었으나 자식들을 따라 모두 외지로 나갔다고 한다. 다시 큰 길로 나와 조금 위로 올라가니 또 역시 폐가가 나타났다. 김명호가 살던 곳이다. 그 옆집에는 김봉규씨가 새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얼마 후 장안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김명호의 손자 김석규씨를 만났다. 우연히 만난 아주 반가운 만남이었다. 김석규의 안내로 김규완의 묘소는 국립묘지에 있으며 현재 손자가 수원에 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김명호의 묘소를 방문할 수 있었다. 묘소는 수촌리 큰말 바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1993년 4월 4일에 건립된 묘비에는 <배숙부인



김명호 집터

광산김씨 금녕김공명호지묘 애국지사통정대부>라고 적혀 있었다.

어느새 해는 저가고 날씨도 추워지기 시작하였다. 오늘 하루 수촌리의 꽃밭, 용당골, 항골 등을 답사하며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대하니 항일운동가들의 따뜻한 마음들을 접하는 것 같아 더욱 애뜻하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우정 장안 지역의 3·1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독립운동가 차희식씨의 손자 차창규(1940년생)씨와 면담을 가졌다. 차희식의 출생지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273번지(당시 영천동 422번지)였으며, 그곳에서 우정면 구슬원으로 이주한 사실, 부인 이유순이 장작원에 주로 사는 전주이씨 양녕대군파였다는 점, 살던 집이 구슬 82번지였다는 점 등 새로운 사실들을 두루 알 수 있었다.



아주 특별한 절 용주사

효성의 절 용주사

1790년 정조는 그 동안의 관례를 깨고 용주사라는 절을 세우게 한다. 새로 옮겨온 아버지의 묘원(현릉원, 지금의 용릉) 옆에 원찰(願刹)을 설립한 것이다. 이는 원찰의 건립을 반대해 온 자신의 정책을 뒤집은 꼴이다. 또 즉위 초의 억불에서 호불 내지는 친불 쪽으로 기울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개인적인 의지에서 나온 결단이라 하더라도 국왕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왜 그랬을까?

용주사 자리에는 오래 전부터 '갈양사'라는 자그마한 옛 절이 있었는데 이를 크게 다시 짓고 이름도 용주사로 바꾼다. 작은 절 갈양사의 과거는 그러나 꽤 화려했던 것 같다. 고려 초

에 주성된 것으로 보이는 범종(국보 제 120호)이 지금도 갈양사의 영화를 잘 말해준다. 한국 종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말없이 전성기를 증명하고 있다.

갈양사에서 말년을 보낸 혜거국사의 비문에 의하면 고려 광종 22년(971)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수륙재가 갈양사에서 열렸다고 한다. 수륙재는 물이나 육지에서 해매는 영혼과 아귀들을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는 불교 의식이다.

정조가 갈양사를 고쳐 용주사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는 전남 장흥 보림사에 있던 보경당 사일 스님의 역할이 컸다. 보경당은 임금을 만

나서 <<불설대부모은중경(佛說大父母恩重經)>>을 바쳤고, 정조는 경전 속에 들어 있는 아버이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보경당을 용주사 창건의 총책임자 격인 8도도화주로 임명한다. 또, <<불설대부모은중경>>을 백성들이 알기 쉽도록, 당대 최고의 화가인 김홍도 등이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달아 새긴 변상도 목판을 용주사에서 소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용주사는 효성의 본찰이 됨과 동시에 불교 교리 중 가장 효성을 강조하는 <<불설대부모은중경>>의 총 본부이자 보급소가 된다.

정조는 이 경전에서 강조하는, 『이 경전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면 돌아가신 부모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 세계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영험을 믿기라도 한 듯이 실천한 것이다. 더구나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에 대한 애뜻함과 그 명복을 정성껏 빌어주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게 된다. 부모은중경에서 설명하는 부모님의 은혜 열 가지는 다음과 같다.

정조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던.

첫째, 아기를 배워서 지켜주신 은혜.

둘째,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받으신 은혜.

셋째, 자식을 낳고서야 근심을 잊으신 은혜.

넷째, 입에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배알아서 먹이시는 은혜.

다섯째, 마른자리는 아기에게 주고 젖은 자리

로 나아가시는 은혜.

여섯째, 젖을 먹여 기르시는 은혜.

일곱째, 손발이 다 닳도록 깨끗이 씻겨주시는 은혜.

여덟째, 먼 길을 떠날 때 근심 걱정하시는 은혜.

아홉째, 자식을 위해서는 나쁜 일까지도 하시는 은혜.

열째, 임종 때도 자식을 걱정하시는 은혜.

아버이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해마다 오월이면 부르는 아버이 노래의 원조는 사실 이 불경에서 따온 것이다.

용주사는 1790년 2월 19일에 건립하기 시작하여 10월 1일 국내의 이름난 스님들을 초청하여 부처님 점안재(點眼齋)를 올리는 것으로 완성된다. 7개월 보름도 채 안 걸리는 짧은 기간에 완공한 것이다. 용주사를 건립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은 시주금이 총 87,505냥 1전인데, 57,388냥 8전은 건축비로 썼고, 2000냥은 화주승들의 여비로, 나머지 28,116냥 3전은 논과 밭을 매입하는 데 썼다. 건축비를 충당하고도 남아서 절의 자립 기반을 위해 전답까지 산 것을 보면 전국적인 모금과 그 호응에 의해 용주사가 건립되었음을 증명한다.



궁궐 건축과 사찰 건축의 절묘한 만남을 보여주는 천보루

용주사에서 보이는 아주 특별한 것들

1790년 사도세자의 원찰로 지어진 용주사에
는 다른 절에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아주
특별한 것들이 보인다. 특히 건축적인 차별성
은 용주사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부분이다. 작지만 아름다운 건물, 더 이상 필
요치 않은 절제, 은은한 화려함 뒤에 숨은 상
징성 등이 용주사가 보여주는 당대의 농축된
문화들이다.

첫째, 삼문三門과 줄행랑이다. 삼문은 궁궐
이나 향교 및 서원과 왕릉 등에 쓰는 격 높은
문의 형식인데 불교사원에 건립한 것은 아주
특별한 예에 속한다. 또한 삼문 좌우에 긴 행
랑을 거느려 줄행랑을 설치하였는데 이 또한
궁궐이나 사대부들의 집에서는 자주 보이지만
사찰에서는 잘 쓰지 않는 건축 양식이다.

이 용주사의 삼문과 줄행랑은 왕실의 권위

를 드높이고 용릉에 온 귀빈이 드나들 때나 사
도세자를 위한 재를 올릴 때 쓰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삼문은 재를 올릴 때만 가운데 문을
열었을 것이고 그 수행원들을 위해 행랑채를
길게 하여 줄행랑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둘째, 천보루에서 보이는 궁궐 건축과 사찰
건축의 절묘한 만남이다. 주 불전인 대웅전으
로 사람을 이끄는 건축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적인 것이 누하진입(樓下進入) 방식이다. 대웅
전 앞에 마당을 조성하고 그 앞에 땅의 높낮이
를 이용하여 마루집을 짓는다. 산에 있는 사찰
의 경우 대개는 앞이 뒤보다는 낮기 때문에 마
루집을 짓기에 좋다. 이 마루집-천보루-아래
를 통과하여 대웅전에 이르게 되는데 가운데
에서 대웅전을 바라보면 양쪽의 기둥과 천장,
그리고 땅의 표면으로 인해 액자가 형성된다.
이 액자 속에는 주 불전인 대웅전이 사진을 찍

은 듯이 쏙 들어오게 된다. 사방으로 흩어지려는 시각을 붙잡아 폐쇄시키고 가운데에 집중하도록 하여 불전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용주사 이전의 사찰에서도 많이 쓰던 방법인데 용주사에서는 대웅전 지붕의 테두리까지 맞추어 액자를 구성하였다. 천보루를 받치고 있는 돌기둥들은 궁궐에서나 쓸 만큼 크다. 용주사를 세운지 80여 년 후에 경복궁의 경회루가 건립된다. 이를 보더라도 천보루 건축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게 된다.

셋째, 대웅전에 오르는 계단 양 옆에는 소맷돌이 있는데, 이는 용릉에 제를 올리는 정자각 신계(神階)의 소맷돌과 닮았다. 소맷돌에 구름 무늬를 새겨서 천상의 세계를 상징하고, 북을 형상화 시켜서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였다. 북을 둥둥둥 올리면 끝없는 전진을 나타내므로 왕실과 국가의 끊임없는 전진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 대웅전 계단 양 옆에 한 면이 터지고 세 면이 막힌 네모난 돌 돌이 땅에 박혀 있는데 이는 괘불지주(掛佛支柱)이다. 다른 절에는 두 돌에 구멍을 뚫어 양쪽으로 한 틀씩 두 틀을 세우는데 용주사에서는 하나의 돌로 만든 것이다. 이 괘불지주에 긴 장대를 세우고 삼베에 그린 부처님을 내모시면 야단법석(野壇法席)이 열리게 된다.

다섯째, 날아갈 듯 날렵하면서도 불전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있는 대웅전은 조선 전성기의 문화적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웅전 안 단집의 정교하고도 화려한 점이나 불상과 후불탱화의 뛰어난 점도 대웅전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다. 특히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후불탱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 기법이 들어간 불화라는 점에 있어서도 단연 다른 절에 비교된다.

여섯째, 대웅전 앞에서 천보루를 바라보면 천보루가 독립적이지 않고 좌우의 요사채와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궁궐 건축의 기법이 녹아 든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안정감 있게 보이면서 웅장한 멋, 그리고 여러 번의 꺾임을 주어서 아기자기한 멋까지 느끼게 한다.

용주사는 사찰이면서도 궁궐인 듯이, 또한 종교적이면서도 비종교적인 듯한 건축적 특성을 보인다. 이는 유교의 입장에서 불교를 아우르고, 불교의 이념을 유교적으로 풀이한 조선 전성기 건축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우리 시대의 여러 대립적인 요소들도 용주사 건축의 방식처럼 풀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1·2·3권 발간의 의의

화성지역 구비전승 자료집 1, 2, 3 권은 우리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민요, 설화, 수수께끼, 민간신앙, 화성무가를 엮은 구비문학 자료집이다.

책은 화성시에 전승되어 온 다양한 마을신앙과 민간신앙, 설화와 지명의 유래, 고유한 민요와 놀이가 수록돼 있는데 1권은 태안·동탄 지역이·2권은 우정읍이·3권은 향남면의 민속자료를 수록했다.

또 각 마을 별로 입향조(마을에 와서 터를 잡고 산 사람들, 성씨 중심)들을 기록했으며 마을지명에 대한 설화와 이야기도 기록해 점차 사라져가는 지역문화의 기초를 확인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특히 책은 민속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한 이와 이를 설명하고 제보한 지역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제 대화형식으로 수록돼 읽는 이들에게 마치 자신이 마을을 찾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현장감을 느끼게 해준다.

현장 답사와 채록은 경기전통문화연구소장인 김용국 박사팀이 맡아 주었는데 김 박사팀은 “사실 이런 자료는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역의 지원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인 많은 일”이라며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이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화성시와 화성문화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화성의 구비전승 채록은 화



성문화원의 주요사업중의 하나로 2004년에야 시작되었다. 화성은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로써, 서해를 통하여 문물이 활발하게 교류하며 고유의 문화유산을 생산하고 발전시켜왔다. 아무리 값진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알리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없는 것이다. 이 발간 사업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구전 문화를 채록하여 화성의 문화적 본질을 밝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1>에서 발췌



- 태안, 동탄 지역
- 2004. 12. 28 발행
- 국배판 변형, 240p

화성시는 구비전승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고장이다. 이번에 동탄면과 태안읍을 중심으로 구비전승 자료를 수집해보니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화성시에서만 발견되는 이야기에는 정조의 화성행궁이나 용릉에 모신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의 효심을 말하는 이야기가 다수 채록되었다. 그러한 <송충이를 씹는 정조대왕>, <소나무에 콩볶음을 매단 정조대왕>, <능참봉 내력>, <떡전거리> 등은 오로지 화성 지역 유형의 이야기라 일컬을 만하다. <송충이를 씹는 정조대왕>과 <소나무에 콩볶음을 매단 정조대왕>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긴 뒤에 치산하기 위해 심은

소나무에 송충이가 들끓자 이를 씹었다고 한 것이고, 기근이 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소나무 껍질을 벗기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콩볶음을 매달았다는 내용이다. 정조가 과연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 의문이나 오히려 임금의 가혹한 효를 나타내기 위해서 변이된 결과로 보아야 옳을 듯하다. <능참봉 내력은> 정조의 효와는 다르게 틈새를 노려서 위기를 모면하며 벼슬살이를 하는 이야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떡 전거리>는 화성 태안읍에서만 발견되는 이야기이다.

특별하게 발견된 소리는 <오자미 던지는 소리>, <밤똥 누는 아이 고치는 소리>, <배 아플 때 배를 만지면서 하는 소리>, <춘향각시 부르는 소리> 등이 있다고 하겠다. <오자미 던지는 소리>는 오자미놀이와 결들여서 하는 소리인데, 근대에 만들어진 소리로 각별하다 하겠다. <밤똥 누는 아이 고치는 소리>는 밤에 화장실을 가는 아이를 고치려고 닭장 앞에 가서 하는 소리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배 아플 때 배를 만지면서 하는 소리>는 주술적인 전통을 이은 것으로 평가된다. <춘향각시 부르는 소리>는 아이들이 자신의 몸에 춘향각시를 실으면서 하는 소리인데, 이 역시 주술적인 강신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다.

닭이나 밤 똥 누지

사람도 밤 똥 누니

닭이나 밤 똥 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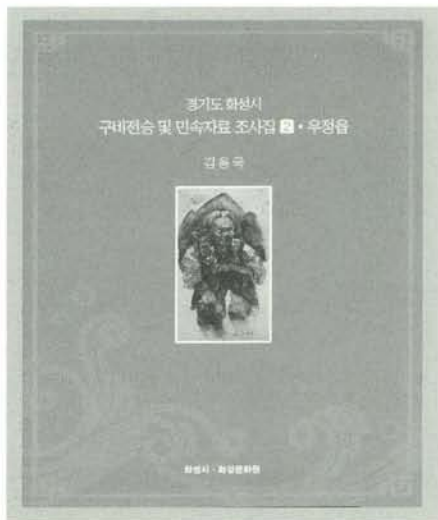
사람도 밤 똥 누니

닭이나 밤 똥 누지

사람도 밤 똥 누니

이 노래는 <밤에 화장실 가는 아이 고치는 소리>인데, 밤에 화장실 가는 버릇이 있는 아이를 데리고 닭장 앞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른 후 절을 세 번 시켜면 그 버릇이 고쳐진다고 전해지는 소리다.

2.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2》에서 발췌



- 우정읍
- 2006. 12. 30 발행
- 국배판 변형, 412p

조사는 마을신앙, 민간신앙, 민간요법 등 토속신앙 등 지역의 고유한 풍속으로의 지역적 특질이 확인될 수 있는 분야와 설화, 민요 등 삶의 터전을 공동으로 일구어가는 토박이 주민들의 의식과 기질을 담고 있는 구비전승물 전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우정읍은 화성시의 남서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우정읍 조암리에 쌍봉산이 자리해 있다. 화성시의 문화적 뿌리를 꼽으라면 단연 쌍봉산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쌍봉산은 우정, 장안에 걸쳐 많은 설화와 지명 등을 남기고 있다.

또한 마을신앙의 측면에서는 호곡리까지도 그 영향권에 든다. 〈마고할멈〉 설화를 통하여 “쌍봉산의 유래”는 물론 ‘삼괴 안에 하루살이가 많은 이유’, ‘남성대 여성의 힘겨루기’ 등 다양한 이야기의 편린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일정 거리가 있는 호곡리의 마을제 축문에서도 쌍봉산의 신령님을 받드는 신앙의 근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화리에서는 만화리가 국화리로 지명이 변경된 유래와 당진과 접해 있으면서 왜 화성시의 부속섬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화도 발굴할 수 있었다. 국화리에서 마을신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을당산의 당에 모시던 신격이 구렁이며, ‘굴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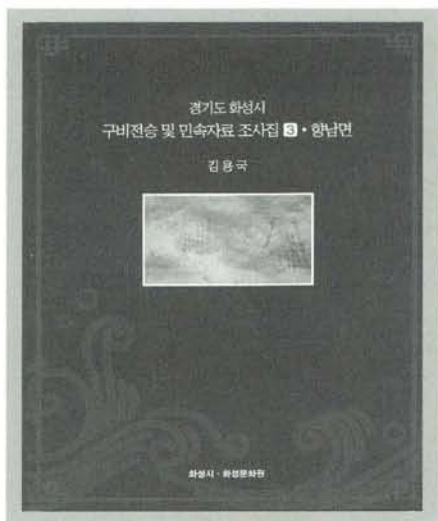
먹는 구렁이' 등 구렁이와 관련된 설화가 채록된 점도 보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지역마다 어떤 단골이 들어왔었는지를 확인하여 화성지역의 무속판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도 의의라 여긴다. 특히 우정지역은 이북출신의 피난민들이 정착한 마을이 여럿 있고 또한 그 곳에서 이주해온 황해도 만신들이 단골판을 형성하고 있던 지역이라 황해도의 무속과 경기도의 무속이 엮여있었음도 확인하였다. 그 구체적 예가 집안에서 최고의 신격인 성주신을 모시는 성주의 신체를 형상하고 있는 성주대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우정에서 채록된 민요 가운데 특기할 것은 국화리에서 채록된 '굴 따러 가세', '날 데려 가거라', '둘러대라' 등의 노래가 있다. 이 노래들은 국화도라는 작은 섬에서 적은 농경지에 어업을 하며 살아가던 험겨운 환경 속에서 그 애환을 담아내고 있는 노래다. 이 밖에 '다리세기', '시집살이', '춘향각시', '자장가', '바람아 불어라', '새야새야', '논맴소리'의 뒷소리 등이 채록되었다.

일천구백 사십오년에
조선나라가 해방되어
연락선에다 이름을 실고
조선 땅에를 건넌으니
거리거리 만세 뜻이오
문전문전이 태극기로다

위 노래는 한뿌리(한각1리)의 홍정년(여, 90세)이 부른 〈해방가〉이다.

3.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3》에서 발췌



- 향남면
- 2006. 12. 30 발행
- 국배판 변형, 412p

이렇게 버거운 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알량한 학자적 양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정신적 자산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다면 후대에 그 한을 어떻게 달랠 수 있겠는가라는 그 원망과 비난이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제보자를 만나지 못하고 마을을 뒤로 한 채 돌아나올 때의 안타까움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연유에서 한 개의 마을을 두 번, 세 번 방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거쳐 본 책자는 마련되었다.

향남면은 화성시의 중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정남면, 양감면, 장안면 봉담읍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향남면은 크고 작은 산이 여럿이다 동오리 쪽에서 보면 매봉산이 있고 송곡리의 소리산, 화리현의 방울산 등이 있다. 향남지역에 전하는 지역고유설화는 지명에 관련된 것이 많이 채록되었다. 예를 들면 “매봉산에서 매를 띄우고 소리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방울산에서 방울을 흔들어 매를 몰아 사냥을 했다.”는 식이다. 상두리는 광산 김씨들의 집성촌으로 ‘허씨할머니 전설’이 전하고 있다. 부처내에서는 전국에 두루퍼져있는 설화인 ‘장장못 전설’이 전한다. 이 외에도 의미있는

설화들이 여러 편 채록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라하면 소가 가는 이유' 일 것이다.

다 의미가 있더라고, 소, 소도 이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잖아요.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서, 전설의 고향인지 전설 따라 삼천린지 라디오에서 한 소리여, 그런데 둘이 소하고 기운센 여자하고 둘이 이렇게 가는데 언덕받이가 그렇게 있더라고. 그 언덕받이가 있는데 그래 소가 그렇게 못 올라거더래 그래서 이 기운센 아줌마가 소를 번쩍 이고 가는 거래요, 그러니 이게 자기가 가는 거 보다 더 힘든 거여, 이 저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운이 세지,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도 이제 반쯤 올라가니까는, 기운이 없어서, 힘이 드니까 내려왔어, 내려놓고 가는데 올라가는데, 이게 또 가다가 힘이 들어서 슬슬 가니까는 아이 이놈의 소가 또 이까봐 이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고, 이놈이 더 힘이 드니까는, 그러니까, 모, 그러니까 또 조금 가다 하 힘이 들어서 못 가면은 아, 이놈의 소가 또 힘이 드니까 이라? 그러면은 또 가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향남면 논농사와 바다농사를 병행하던 지역이다. 바다와 접한 지역은 구문천리로 구밀에서 당제사를 성대하게 치루었던 것도 이러한 생활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참으로 많은 어른들을 만나서 자료로써 뿐만아니라 개인의 생활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화성의 문화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며, 바로 알리는 방도가 되리라 믿는다.

제44차 정기총회

제44차 정기총회가 2월 27일(화) 화성웨딩부페에서 오전 11시에 개최되었다. 2006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임 안건을 처리하였다.

일시 : 2월 27일(화) 11시

장소 : 화성웨딩부페

내용 : 2006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임 안건 처리



제88주년 3·1절 기념행사

만세운동재현행사를 중심으로 문화원 광장에서 출발하여 제암리 기념식 행사장까지 거리행진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그날의 함성과 모습을 재현하였다. 또한 극단 성의 마당극(아! 제암리 만세) 재현극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참상을 떠올리며 숙연해 지기도 하였다. 매년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는 더욱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행사 등 각종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다.

일시 : 3월 1일(목) 09시~

장소 : 문화원광장, 발안·제암리 일원

내용 : 만세재현행사, 기념식, 마당극,
혈서체험·고문체험 등 각종 부대행사



전통민속발굴 및 전승행사

제8회 서봉산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가 3월 3일(토) 11시 정남농협 뒤 갈천둔지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는 천지제를 시작으로 기념식 및 연날리기, 윷놀이, 투호놀이, 새끼꼬기대회 등 민속놀이 마당이 펼쳐졌으며 달집태우기, 지신밟기로 풍농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보통내 용줄다리기

일시 : 2007년 3월 4일 11시~

기안말 용줄다리기

일시 : 2007년 3월 4일 14시~

장안리 도당굿

일시 : 2007년 3월 28일 10시~

문화원 회비 및 후원금을 내주신분께
감사 드립니다.



임원 회비

기봉서	2,500,000원	정범석	400,000원
지현숙	1,000,000원	이상근	400,000원
이병천	1,000,000원	오보환	400,000원
고정석	400,000원		

회원 회비

신진숙	120,000원	이세진	120,000원
이도형	120,000원	이승남	100,000원
이도형	120,000원(2006년)	편형진	100,000원
오석길	120,000원	최길상	40,000원
이승구	120,000원	이득림	30,000원
조준상	120,000원	박귀영	30,000원
손병석	120,000원	임순이	10,000원
김윤중	120,000원(2006년)	백은주	10,000원
한완수	120,000원	배정미	10,000원
이승용	120,000원	장미자	10,000원
김용혁	120,000원	김선영	10,000원
이승구	120,000원	이정자	10,000원
김광우	120,000원	오세영	10,000원
김철중	120,000원		

후원금

기봉서	200구좌	고정석	20구좌
남양김치(홍은수 감사)	50구좌	홍은수	10구좌
에덴조경(차재천이사)	50구좌	이상만	1구좌
현프로젝트	30구좌	윤용수	1구좌



작은 종이비행기가 넓은 창공에 비상하는 꿈을 그리며
우리 인재들의 꿈이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모두 마음을 모아
화성지역 인재의 꿈을 하나하나 실현하면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열립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운영사업을 합니다.

Mentor

(후원역) 발굴

후원 Mentor발굴

- 지역출향인사그룹
- 관내 경영·기업가 그룹
- 관내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 등
- 일반 시민 그룹

캠페인

Mentor확대발굴을 위한 캠페인

- 소식지 발간(년2회/“고향을 지키는 못생긴 소나무”)
- 홈페이지활용(회원상설가입 유도)
- 현수막 등 시각홍보물을 활용한 후원문화확산

교류협력

후원자에게 ‘보람’을- 인재에게는 ‘정체성’과 ‘책임감’을-

- 후원자와 인재의 만남·교류기회마련
- 보람환원프로젝트-수혜졸업생등 대상
(인재의 지역봉사 마인드와 능력환원 기회 부여)

2007년 사업계획

1차 임시이사회 개최-재단사업
다원화를 위한 방안 모색 / 화성 장학관
(가칭, 서울지역 대학생 기숙사) 수락 추진 /
2006년도 결산총회 / 화성장학관 입사개시
(수탁의 경우) / 진학우수장학생 선발공고 /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의 역할’ 세미나 개최 /
화성인재참여마당 (봉사 및 화합의장) 개최 /
2차 임시이사회 개최 / 제1차 화성인재 정체성
찾아가기 (화성지역탐방) 개최 / 재단소식지
‘고향을 지키는 못생긴 소나무’ 발행 /
3차 임시이사회 개최 / 제2차 화성인재정체성
찾아가기 (화성지역 탐방) 개최 / 화성시 자립
장학생 선발 공고 / 4차 임시이사회 개최 /
화성시 자립장학생장학증서 수여식 /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의 역할’ 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회원가입 약정서

이름 / 기관명

주소 / 연락처

E-mail

나(우리)는 화성미래인재육성에 동참하고자 위와 같이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060-300-1479 (천사친구)

한달에 5,000원도 못되는 건강보험(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웃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한달에 한번 천사친구에 전화를 주시면 1년에 5명의 어려운 이웃이 정성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 같은 집에서 정신장애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중학교 1학년 소녀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못해 교회나 마을 회관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사람이 한달에 한번 천사친구에 전화를 해주시면 한가정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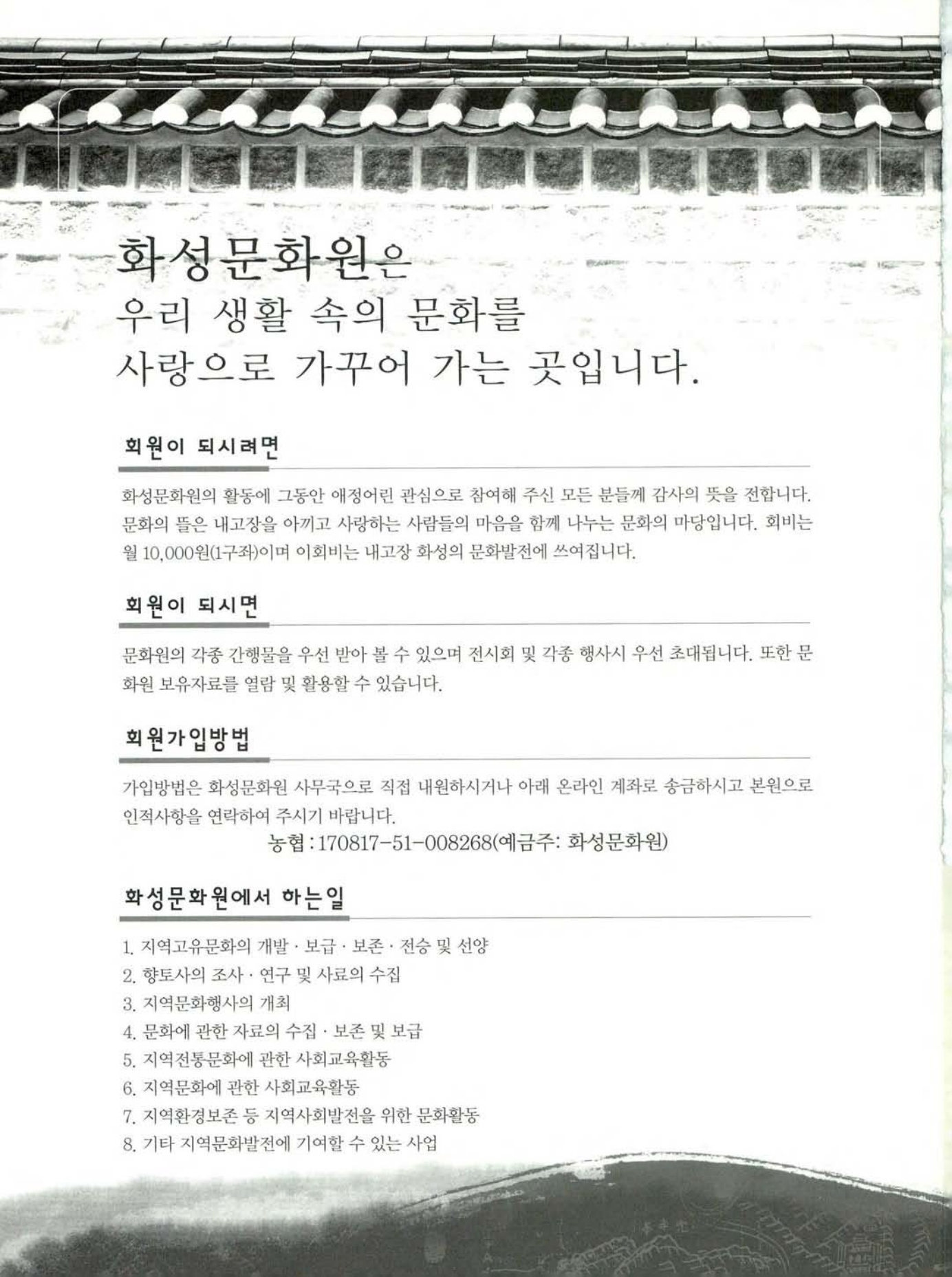
버려진 폐가에서, 지병으로 거동조차 못하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7남매가 방 한칸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잠을 청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백사람이 한달에 한번 천사친구에 전화를 해주시면 열명의 난치병 환우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 그 속에 우리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열 걸음을 옮기는 것보다도,
우리 화성시 시민 모두가 한걸음씩만
같이 한다면 30만 걸음을 뚫 수 있습니다.



화성문화원은 우리 생활 속의 문화를 사랑으로 가꾸어 가는 곳입니다.

회원이 되시려면

화성문화원의 활동에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문화의 틀은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문화의 마당입니다. 회비는 월 10,000원(1구좌)이며 이회비는 내고장 화성의 문화발전에 쓰여집니다.

회원이 되시면

문화원의 각종 간행물을 우선 받아 볼 수 있으며 전시회 및 각종 행사시 우선 초대됩니다. 또한 문화원 보유자료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방법

가입방법은 화성문화원 사무국으로 직접 내원하시거나 아래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시고 본원으로 인적사항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 170817-51-008268(예금주: 화성문화원)

화성문화원에서 하는 일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100% 우리농산물이 맛의 비결입니다.

수라청 김치

수라청김치는 임금님께 올리는 정성으로
우리나라 전통 김치의 참맛을 이어갑니다.



수라청 김치



농협이 자랑하는 수라청 김치-

정갈하고 고풍스런 맛을 내기 위하여 산지에서 엄선한 원료만을 고집합니다.

다양한 포장규격

120g, 400g, 800g, 1Kg, 2.5Kg, 3Kg, 4.5Kg, 5Kg, 10Kg
소비자 주문에 따라 포장규격을 다양하게 맞춰드립니다.

남양농협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857-2
Tel : 031-356-4406~8 Fax: 031-356-4409

무료주문전화

080-356-4401